

NEWS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윤 신속 파면을”...야, 현재 압박수위 높여

▶1면 ‘광주로 초대’서 계속

강기정 시장 등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에게 관광상품 이용(할인)권인 ‘광주를 드립니다’를 전달하는 등 홍보에 앞장섰다.

또 서울역 대합실 등 현장에서 홍보물과 기념품을 나눠주며 ‘광주방문의 해’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홍보활동도 펼쳤다.

유인촌 장관은 “많은 이들과 뜻을 모아 광주 방문의 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역사박물관 분관인 민주화역사관 광주 설립과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만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2024년 보여준 ‘광주의 힘’과 기쁨을 기본 좋은 만남으로 계속 이어가기 위해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준비했다. 야구·축구·양궁, 디자인비엔날레 등 풍성한 축제가 오고 이를 온전히 누릴 여러분들이 될 것이다. 광주로 오셔서 광주의 맛과 멋의 매력을 듬뿍 느껴달라”고 초대했다.

▶1면 ‘크보빵 품귀’서 계속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후기가 올라오는 등 반응이 뜨겁다.

한 유튜브는 ‘동네에 있는 크보빵 다 털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크보빵 영상을 올렸다. 3만3300여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에는 각 빵에 대한 맛을 평가하며 따부실을 인증했다. 화화빵 3개 중 KIA 김도영·이우성 선수, 두산 박준영 선수, 기아빵 2개에서는 삼성 구자욱 선수와 kt 황재균 선수가 나왔다.

맛글에는 ‘기아빵만 10개 샀는데 9개가 삼성 원태인 나왔어-KIA팬’, ‘호남인데 KIA빵 6개 중 NC 4개, LG 1개, kt 1개’라고 푸념했다.

중고거래사이트에는 정가보다 비싸게 빵과 따부실이 거래되고 있었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김도영 선수 따부실은 2만5000원에 판매 완료됐으며, 양현종·한준수 선수의 따부실은 각각 3000원에 거래됐다.

한 KIA팬은 빵을 9개 구매했지만 KIA 선수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 최형우·양현종·곽도우 선수로 교환을 원한다는 글을 비롯해 수많은 교환 글이 게재됐다.

KIA팬 김모씨(36)는 “여러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어렵게 빵을 구매했는데 타구단 선수 따부실이 나와 속상하다”며 “빵은 물론 야구 표도 구하기 어려워 중고 거래 사이트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108배 행동’, ‘포토부스’, ‘집단농성’ 등 돌입 현재, 변론종결 한달째 무소식에 4월 선고설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101가지 이유 백서’를 발간했고,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은 ‘108배 행동’, ‘포토부스’, ‘현재야 집단농성’ 등을 펼쳤다.

▶관련기사 5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파면이 시급하다. 국민께서는 이제 나서주세요. 현재 선고를 꼭 빠지게 기다립니다”며 “선고도 지체될수록 현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31명은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101가지 이유 백서’

를 발간하며 현재의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3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101가지 실정을 백서로 만들어 국민과 후대 세대에 남기려고 한다”며 “이 백서가 민생을 위해 함께 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탄핵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갈등 해소 비용은 전문학적으로 증가한다”며 “파면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파산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도 이어갔다.

박권택 의원은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하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바로 안정을 되찾겠지만, 기각하면 내전 상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을 결단 내겠다는 것과 같은 결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선 의원들로부터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101가지 이유’ 백서를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백혜련, 박찬대, 박정, 김영호 의원.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도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해 활동 무대를 광화문과 현재 앞으로 옮겨 여론전에 나섰다.

혁신당 김신진 대표 권한대행은 현재 앞에서 ‘현재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108배 행동’을 이어갔다.

단식 8일 차를 맞은 정해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광화문 서심사각 진보당 농성

장 브리핑에서 “87년 6월 항쟁으로 태어난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지난 24일부터 천막농성장을 임시당사로 운영하는 한편 ‘현재가 무류는 결정, 주권자 시민이 내린다’ 포토부스 퍼포먼스에 돌입했다. 뉴스 속보 형태의 품보드를 설치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직접 파면 선고를 내리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을 인증샷 촬영할 수 있게 만든 포토부스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이후 한 달을 꼭 채 이날까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오는 28일과 함께 4월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도, ‘에너지 2법’ 시행 앞서 선제 대응

해상풍력특별법 등 법령마련 시군·발전사·전문가 간담회

전남도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에너지 2법 시행에 앞서 선제 대응에 나섰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 시행 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실효성이 있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발전사, 관련 기관·협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 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상풍력특별법, 전력망특별법은 공포 후 각각 1년과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해상 풍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주요 규정이 대부분 대통령령 등으로 위임돼 있다.



전남도는 최근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 시행 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실효성이 있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요건, 발전사업자 선정 요건, 실시계획 승인, 전담기관·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하위법령의 핵심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력망특별법은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인 주민수용성 확보와 관련된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 또는 지원의 범위 설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지원 등이 핵심 사항으로 논의됐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

용을 바탕으로, 2개 법률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조속히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을 앞둔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도록 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시 주민 보상·지원, 민원 해소를 위해 산업부 산하 원스톱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전남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경북 안동·의성 산불확산...주민 대피명령

산불재난 국가위기관리 ‘심각’

나흘째 확산하는 경북 의성 산불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안동 시민과 청송군민들에게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안동시는 25일 “산불이 우리 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니 전 시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청송군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전 군

민은 산불과 멀리 떨어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길 바란다”고 알렸다.

산림청도 이날 오후 4시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관리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산림청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과 22일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이 현재까지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산불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재난 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를 상황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남 구제역 차단방역 강화...발생지역 특별관리

전남도는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지역 특별관리, 축산차량 방역, 소독시설 확대 운영, 방역 위반 사항 확인 시 보상금 감액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22일까지 전 시군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나, 현재 형상에는 약 1~2주가 더 소요되는데다, 위험지역 내 바이러스 순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발생농장과 발생지역을 특별관리한다. 발생농장과 영양군의 소 생축 이동, 가축시장 출하, 농장 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했다.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 출하를 허용한다. 출입 차량은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도착 전·후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해야 하며, 농장 내 진입을 할 수 없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직원과 고객, 더불어 성장하는 주식회사 노아

시설물유지관리, 건축공사, 금속청소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옥상방수공사

물탱크도장공사

화장실공사

인증 및 특허 사회적기업인증서, 시설물유지관리 전문건설업등록증

공공기관 실적

- 목포시 수영장물정비사업 부분보수
- 전남체육고등학교 웨이트트레이닝실 벽체보수공사
- 목포교육지원청 유치원교실 바닥보수공사
- 신안교육지원청 장산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심함배수정의 보수공사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스타트업 보육실 인테리어공사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거문도등대 태풍피해 복구공사
- 무안군청 삼향교 복용교 교량난간 정비공사

노아건설(주)

전남 목포시 연산백련로 1번길 51 ☎ 061-285-6100